

## 청소년 소비자의 여가활동선호유형과 여가체험선호

서정희 · 박정희

아동가정복지학과 · 학성여자중학교

### <요 약>

이 논문은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소비자 622명을 대상으로 하여 여가활동선호유형을 밝히고,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여가활동선호유형 간의 관계 및 여가체험선호가 여가활동선호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여가활동선호를 구성하고 있는 3차원인 시간소일활동선호차원, 자기개발활동선호차원, 건강 및 오락활동선호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적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 시간소일활동강조선호유형, 소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여가활동선호유형은 성별 및 종교와 의미있는 관계를 보이고, 여가체험선호는 여가활동선호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 Adolescent Consumers' Preference Type in Leisure Activities and Leisure Experience Preference

Seo, Jeonghee · Park, Jeonghee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 Hakseong Girls Middle School

### <abstract>

This research addresses a adolescent consumers' preference type in leisure activ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ference type in leisure activities and socio-economic variables and the mean differences of leisure experience preference among the preference type in leisure activiti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62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Ulsan. The preference in leisure activities are consisted of 3 dimensions: time spending activities, self-developing activities and health and recreation activities. 3

clusters were extracted through cluster analysis to use 3 dimensions of preference of leisure activities. Active preference type in leisure activities, the type of strong preference in the time spending activities and passive type in leisure activities. Among socio-economic variables sex and religion have effects on the preference type in leisure activities. The mean of the leisure experience preference among the preference type in leisure activiti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 I. 서론

생활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여가는 생활의 질이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여가는 일반적으로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Unger와 Kernan, 1983)이며,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은 생활의 질과 지역사회생활의 질 및 정신건강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써(Allen & Beattie, 1984; Trafton & Tinsley, 1980), 여가소비방식에 대한 만족은 전반적인 행복과 가장 강력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영역이 생활의 질에 대해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가 연구는 급증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참여의 실태 및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것이 대부분이다. 성영신·고동우·정준호(1996)는 이러한 연구들은 산업사회적 관점에서 ‘일(work)’을 중심으로 여가 행동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여가 참여자의 주관적인 경험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소규모표적 집단면접을 통하여 여가체험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인간은 여가활동참여를 통하여 긍정적인 여가체험과 부정적인 여가체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영신 등(1996)이 제안한 여가체험이라는 개념보다는 여가체험선호라는 개념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여가활동은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신의 주관적 선호에 의하여 선택하고, 여가활동참여를 통하여 형성된 여가체험선호는 다음의 여가활동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부정적인 여가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영신 등(1996)은 질적인 연구를 통하여 여가경험의 심리적 특성만을 밝혔으므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여가체험선호의 전반적인 경향을 밝히는 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여가활동선호유형과 여가체험선호간의 관계를 밝히는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선호하고 있는 여가체험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실천적인 면에서는 여가수요예측, 여가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설계획, 여가정책 등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Chase & Cheek, 1979).

청소년문제에서 여가활동은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청소년소비자들은 여가활동참여를 통하여 또래와 진지하고 깊이있게 사귄 수 있으며, 서로 이해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참여적 여가활동은 숨겨져 있는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고 발휘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소비자의 주체적 상상력을 키워줌으로써 입시경쟁에서 탈락한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일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소비자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때문에 능동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에서 여가활동선호가 가지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본

다. 여가연구에서 여가선호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여가선호가 여가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가활동선호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유형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여가활동참여와 여가활동선호의 상관관계가 여가활동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활동에 대한 선호나 참여는 특별히 그 활동에 대한 선호나 참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활동에 대한 선호나 참여를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가활동선호를 측정하여 유형화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여가체험선호가 여가활동선호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청소년소비자의 여가활동을 유형화함으로써 여가활동선호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여가활동선호유형과 여가체험선호간의 경험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여가활동선호와 여가체험선호간의 경험적 관계에 관한 여가행동이론을 보다 정교화시키며, 실천적으로는 청소년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건전한 여가문화정착에 일조를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가활동선호의 정의와 차원

여가활동선호의 정의와 차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가활동을 정의하고 차원을 규명해야 한다. 여가활동체험선호는 이상과 같은 여가활동에 대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가활동은 여가의 개념 중에서 활동개념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여가활동이란 자유시간에 행하는 활동으로써, 노동·가족·사회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휴식이나 오락을 위하여, 또는 지식, 자발적 사회참여, 창조적 능력의 자유로운 실현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외숙, 1991:9). 이처럼 여가활동의 정의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거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활동의 차원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참여빈도, 개념, 욕구충족적 특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Lee, Datilo 및 Howard, 1994; 김외숙과 이기춘, 1992).

여가활동의 유형화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빈도를 근거로 군집분석 또는 요인분석을 함으로써 활동을 분류하는 것이다. Duncan(1978)은 근린운동·수공예·가계관련·휴양·지적활동으로 여가활동을 분류하였다. 김외숙(1991)과 이기영과 장윤희(1991)는 자기개발활동, 가정지향활동, 종교/사회참여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 등으로, 홍성희(1991)는 자기개발적, 가정지향적, 시간소일적, 사교적, 자녀중심적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현주(1985)는 교제·자기개발·건강유지, 향상·종교, 사회참여·휴식, 오락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욕구충족적 특성에 따른 분류는 여가 활동에 참여할 때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개인이 왜 여가활동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여가활동을 휴식형·기분전환형·자기개발형으로 분류하는 방법(Dumazedier, 1962; 김외숙(1991)에서 재인용), 자기발전적·건강 및 오락적·시간소일적 활동으로 분류하는 방

범(김철호, 1985)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개념적 분류는 조사대상자나 연구자가 여가활동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내재한 인식의 차원에 근거를 두고 활동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여가활동을 개념적으로 분류하는 대표적인 예는 적극적/소극적 여가활동(한경미·황덕순, 1990), 개인적/가족적/사회적·지역적 활동(Itoh et al,1988), 개별활동/parallel활동/joint활동(안동선,1982)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논문은 여가활동의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청소년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여가활동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으며, 여가활동선호유형에 따라 여가체험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욕구충족적 특성을 분류기준으로 하여 청소년소비자들의 여가활동을 시간소일활동, 자기개발활동 및 건강 및 오락적 활동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시간소일활동에는 휴식·낮잠 등, 여가활동으로만 하는 가족과 대화·외식, 여가활동으로 하는 친구·친지·이웃 등 만나기, 데이트, 여가활동으로만 하는 시장이나 백화점나들이, TV보기·라디오 듣기·VTR보기 등이 포함된다. 자기개발활동에는 독서·기능자격공부(컴퓨터, 영어회화 등), 운동, 종교활동, 사회봉사·사회단체활동참여 등이 포함된다. 건강 및 오락적 활동은 수집활동·문예활동 등 취미활동, 게임 및 오락, 악기연주·노래부르기·춤추기 등, 음악회·영화·연극·작품전시회 관람, 야외나들이·여행 등이 포함된다.

## 2. 여가체험선호의 개념과 차원

최근에는 여가동기가 실현되는 과정인 여가체험의 내용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체험 연구의 증가 추세는 부분적으로 질적 방법론이 인정을 받는 학문적 풍토의 형성과 관련이 있다(Csikszentmihalyi, 1975, 1990; Csikszentmihalyi & Larson, 1985; Lee 등, 1994). 예를 들어 Lee(1994)등은 현장참여적방법과 면접법을 병행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여가 체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여가 체험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로, Caldwell, Smith 및 Weissingetr(1992)는 '여가체험총집 (leisure experience battery)'을 구성하면서 따분함, 지각, 불안, 도전 등 네 차원의 포괄적인 정서적 체험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성영신·고동우·정준호(1996)는 이들 연구가 여가체험의 중요한 차원인 자기표현, 신체적 역동감, 유행심리, 대자연감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자기녹음방법 및 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여가체험의 내용을 파악한 Lee(1994)등은 여가 경험의 과정이 매우 역동적이며 내용면에서 다양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주요 체험 차원으로 대인교류·탈출·자연교류·신체적 자극·지적 능력 배양·창의적 표현·내성·이완·재미(fun)·즐거움(enjoyment) 등을 발견하였다. 그 외에 소진감·동료 이해감·신경증적 느낌·실망·좌절·죄의식·묵상 등의 체험도 발견하였다. 그러나 성영신·고동우·정준호(1996)는 Lee 등의 연구가 유능감, 유행심리 등을 빠뜨렸고, 재미, 즐거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차원들도 세분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비판하고, 참여관찰, 개별면접, 소규모 표적집단 면접 등의 질적 방법을 활용하여 후기 산업시대의 주역인 만 18세부터 34세의 여가활동참여자 24명을 대상으로 하여 여가체험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여가체험을 크게 활동지향적 체험, 사회지향적 체험, 환경지향적 체험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활동지향적 체험이란 개인이 여가활동을 하는 동안 활동 자체의 특성이나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가참여자가 겪게 되는 심리적 체험선호 내용을 말한다. 사회지향

적 체험은 여가 활동을 하는 동안 참여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체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지향적 체험은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요소인 자연환경이나 인공시설의 특성과 자기(self)의 관계 맥락에서 유발되는 체험 영역이다.

그러나 성영신·고동우·정준호(1996)가 제시한 11가지 체험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11가지 체험을 3가지로 분류했는데, 환경지향적 체험이 활동지향적 체험과 사회지향적 체험에 비하여 구성하는 하위체험의 종류의 수가 너무 작으며, 개념적으로도 대자연감과 편리함을 하나로 묶어서 환경지향적 체험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후기산업사회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로 많은 학문분야에서 지적하고 있는 소비문화지향적 체험이 빠져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여가체험에는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여가체험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다루기 위하여 여가체험선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가 체험의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여가를 긍정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하고(Iso-Ahola, 1980), 여가결과의 긍정적인 측면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가체험의 긍정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성영신·고동우·정준호, 1996).

이 논문에서는 여가활동체험선호를 활동지향적 체험선호, 사회지향적 체험선호 및 소비문화지향적 체험선호로 분류하였다. 활동지향적 체험선호에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 확인, 자신의 몸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느낌, 모험감,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는 느낌, 새로운 종류의 활동에 대한 호기심 충족 등의 하위요소가 포함된다. 사회지향적 체험선호에는 기술과 능력의 표현, 가치관 및 성격 표현, 사회경제적 지위 표현,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친밀한 인간관계의 유지와 발전, 혼자 있을 때의 즐거운 경험,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즐기는 것 등의 하위요소가 포함된다. 소비문화지향적 체험선호에는 외모의 표현, 유행에 따라 행동하는 것, 편리한 시설로부터 심리적 편안함을 얻는 것, 자연을 정복하는 느낌을 맛보는 것, 자연에 동화되는 느낌을 맛보는 것 등의 하위요소가 포함된다.

### 3. 관련변수의 고찰

#### 1)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여가활동선호유형

여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성격, 성별, 종족, 사회계층 등의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cAvoy(1979)의 연구에서는 주거지역에 따라 특정여가 활동에 대한 선호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족과 계층인식이 여가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Floyd와 그의 동료들(1994)의 연구에서는 스스로 중류라고 인식하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유사한 여가선호를 보였고, 자신을 빈곤층 또는 노동계층으로 인식하는 흑인과 백인은 다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외숙(1997)에 의하면 연령은 종교·사회참여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유형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고, 교육수준에 따라 자기개발활동, 사교활동, 소일활동에 대한 선호는 차이가 있었으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집단이 중졸이하의 집단보다 자기개발활동에 대하여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중졸 이하의 주부집단은 대졸 이상의 집단보다 사교활동과 소일활동에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그 외에 가계총소득도 사교활동선호만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수가 여가활동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대상자와 여가활동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여가활동선호유형과 여가체험선호

선행연구를 고찰한 바에 의하면 여가활동선호유형과 여가체험선호간의 관계를 다룬 논문은 없었다. 그러나 여가체험의 역사가 여가활동참여동기의 다차원적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Williams, Schreger, Knopf(1990)의 연구가 있다. 여가체험은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는 심리적 체험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여가체험은 여가활동참여를 통하여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여가활동참여는 여가활동선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여가활동선호유형에 따라 여가체험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III. 연구문제

이 논문에서는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소비자들의 여가활동선호는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 <연구문제2> 울산광역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소비자들의 여가활동선호유형별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3> 청소년소비자들의 여가활동선호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 <연구문제4> 청소년소비자들의 여가체험선호는 여가활동선호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도구의 구성

##### 1) 여가활동선호

여가활동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참조로 하여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대로 시간소일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6문항, 자기개발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4문항, 건강 및 오락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가활동선호 점수는 각 문항마다 '매우 하기 싫다'의 1점부터 '매우 하고 싶다'의 5점까지 부여하는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ronbach의  $\alpha$  계수로 측정한 15문항의 신뢰도계수는 .63이고, 여가활동선호의 하위차원별로 보면 시간소일활동선호는 .47, 자기개발활동선호는 .43, 건강 및 오락활동선호는 .44로 나타났다.

<표 1> 여가활동선호의 신뢰도 계수

	문항수	여가활동선호
시간소일활동선호	6	.47
자기개발활동선호	4	.43
소비문화지향활동선호	5	.44
여가활동선호	15	.63

2) 여가체험선호

여가체험선호 척도는 성영신·고동우·정준호 (1997)의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활동지향적 체험선호 6문항, 사회지향적 체험선호 7문항, 소비문화지향적 체험선호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싫어한다'의 1점부터 '매우 좋아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2>에서 Cronbach의  $\alpha$  값으로 측정한 18문항으로 구성된 여가체험선호의 신뢰도 계수는 .77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위차원별로 보면 활동지향적 체험은 .69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나, 사회지향적 체험과 소비문화지향적 체험은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표 2> 여가체험선호의 신뢰도 계수

	문항수	여가 체험 선호
활동지향적 체험	6	.69
사회지향적 체험	7	.43
소비문화지향적 체험	5	.49
여가체험선호	18	.77

2. 표집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이 논문의 모집단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소비자이고, 표집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을 선정하였다. 가정환경수준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사지역을 중구, 남구, 동구로 나누었으며 남녀공학학교와 고등학교는 인문계, 실업계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는 1998년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각 학교에 근무하시는 관련교과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어 50부씩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총 8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직접 약 20분에서 30분간 응답하게 하고, 모두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622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여가활동선호를 구성하고 있는 3차원인 시간소일활동선호차원, 자기개발활동선호차원, 건강 및 오락활동선호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여가활동선호를 유형화하고 유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군집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하였다. 여가활동선호유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하였다. 여가체험선호가 여가활동참여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Scheffe' 검증을 하였다.

## 4. 조사대상자의 특성

&lt;표3&gt;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여	285	45.8
	남	337	54.2
학년	중1	291	46.9
	고1	329	53.1
종교	무교	235	38.0
	기독교	94	15.2
	불교	238	38.4
	천주교	42	6.8
	기타	10	1.6
월평균용돈	1만원 미만	84	13.8
	1~2만원 미만	178	29.2
	2~3만원 미만	137	22.5
	3만원 이상	210	34.5
월평균 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80	13.7
	100~150만원	194	33.3
	150~200만원	163	28.0
	200만원 이상	146	25.0
생활수준	못 사는 편	43	7.0
	그럭저럭사는정도	492	79.1
	잘 사는 편	86	13.8
아버지의 직업	전문·관리직	127	21.2
	전문기술직	127	1.8
	사무직	119	19.9
	자영업	126	21.0
	판매·서비스직	6	1.0
	생산직	167	33.8
	기타	41	6.9
어머니의 취업여부	비취업	422	69.9
	취업	182	30.1
아버지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00	18.0
	고졸	368	60.2
	대졸이상	133	21.7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94	31.9
	고졸	353	58.0
	대졸이상	62	10.2



<표 3>에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54.2%로 여학생에 비하여 약간 많이 표집되었으며, 고등학생은 53.1%를 차지함으로써 중학생에 비하여 약간 많이 표집되었다. 종교는 불교가 38.4%, 종교가 없는 학생이 38.0%, 기독교는 15.2%를 차지하였다. 월평균용돈은 3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학생이 34.5%로 가장 많았고, 1-2만원을 사용하는 학생은 29.2%로 두 번째로 많았다. 월평균가계소득은 100-150만원이 33.3%, 150-200만원이 28.0%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그럭저럭 사는 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이 79.1%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생산직이 33.8%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과 자영업이 각각 21.2%, 21.0%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비취업이 69.9%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각각 60.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졸로 21.7%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8.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중졸이하로 37.9%를 차지하였다. 전반적으로 표본의 특성을 평가하면 대체로 고르게 표집되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 V. 연구결과

### 1. 여가활동선호유형

#### 1) 여가활동선호차원의 경향

<표 4> 여가활동선호차원의 경향

범위	여가활동선호차원					
	시간소일활동선호		자기개발활동선호		건강 및 오락활동선호	
	점수	백분율	점수	백분율	점수	백분율
하	6~12	0.0	4~8	3.1	5~10	0.8
중하	13~18	5.4	9~12	30.3	11~15	8.2
중상	19~24	58.1	13~16	56.1	16~20	56.2
상	25~30	36.5	17~20	10.5	21~25	34.8
평균	23.33		13.40		19.34	
표준편차	3.03		2.51		2.98	
전체범위	6~30		4~20		5~25	

<표 4>에는 여가활동선호를 구성하고 있는 3개 하위차원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4개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포를 제시하였다. 시간소일활동차원은 중상집단이 5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상집단으로 36.5%를 차지하였다. 평균은 척도의 중간값인 18점을 많이 상회하는 수준이다. 자기개발활동차원은 중상집단이 56.1%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중하집단으로 30.3%를 차지하였다. 평균은 척도의 중간값인 12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건강 및 오락활동차원은 중상집단이 5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상집단으로 34.8%를 차지하였다. 평균은 척도의 중간값인 1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울산시

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자기개발활동 보다는 건강과 오락활동 및 시간소일활동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여가활동선호 차원의 특성 및 유형의 명칭

<표 5>에는 유형화된 3개 집단을 구성하는 각 차원의 특성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각 유형의 명칭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로 청소년소비자의 여가활동선호를 구성하는 하위 차원의 표준화된 점수와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e' 검증 결과를 가지고 하위차원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의 점수의 순위가 제시되어 있다.

<표 5> 여가활동선호 하위차원의 표준화된 점수와 집단간 순위

차원	집단		
	집단1	집단2	집단3
시간소일활동	.24 1	.42 1	-1.14 3
자기개발활동	-1.08 3	.63 1	.03 2
건강 및 오락선호활동	-.14 2	.59 1	-.97 3

<집단1>은 시간소일활동선호차원의 표준화된 점수는 양의 값을 가지나, 자기개발활동선호차원과 건강 및 오락활동선호차원의 표준화된 점수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과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시간소일활동선호차원은 1위, 건강 및 오락활동선호차원은 2위, 자기개발활동선호차원은 3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집단은 시간소일활동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시간소일활동강조선호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소비자는 167명으로 28.30%를 차지함으로써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집단2>는 시간소일활동선호차원, 자기개발활동선호차원 및 건강 및 오락선호활동차원의 표준화된 점수의 부호가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집단과의 순위를 비교해 봐도 세 차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집단은 세 차원 모두를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때문에 적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소비자는 280으로 전체의 47.45%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집단3>은 시간소일활동선호차원과 건강 및 오락활동선호차원의 표준화된 점수의 부호는 음의 값을 가지나, 자기개발활동선호차원의 표준화된 점수의 부호는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과의 순위를 비교해 보면 시간소일활동선호차원과 건강 및 오락활동선호차원은 3위를, 자기개발활동선호차원은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이 집단은 세 차원 모두를 가장 적게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때문에 소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이

라고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소비자는 143명으로 전체의 24.23%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적은 수의 사람이 포함되었다.

## 2. 여가체험선호의 경향

여가체험선호 각 하위영역별 전반적인 경향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사회지향적 체험은 상위집단이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중상위집단으로 40.3%를 차지하였다. 소비문화지향적 체험은 중상위집단이 53.8%로 가장 높았고, 상위집단은 39.3%로 나타났다. 평균은 척도의 중간값인 15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활동지향적 체험은 중상위집단이 6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상위집단으로 18.6%를 차지하였다.

<표 6> 여가체험선호의 경향

범위	여가체험선호					
	사회지향적 체험		소비문화지향적 체험		활동지향적 체험	
	점수	백분율	점수	백분율	점수	백분율
하	7~14	0.4	5~10	0.4	6~12	0.0
중하	15~21	2.2	11~15	6.6	13~18	13.6
중상	22~28	40.3	16~20	53.8	14~24	67.8
상	29~35	57.1	21~25	39.3	25~30	18.6
평균	28.86		19.62		21.72	
표준편차	3.52		2.73		3.14	
전체범위	7~35		5~25		13~30	

## 3.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여가활동선호유형

<표 7>에는 청소년소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여가활동선호유형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소비자의 여가체험선호유형은 성별 및 종교와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 월평균용돈, 월평균가계소득,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취업여부,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여가활동선호유형과의 교차분석

		시간소일활동 강조 선호유형	적극적여가활동 선호유형	소극적 여가활동 선호유형
성별	여	76(45.5)	143(51.1)	51(35.7)
	남	91(54.5)	137(48.9)	92(64.3)
계		167(100.0)	280(100.0)	143(100.0)
$\chi^2 = 9.06^*$				
학년	중1	77(46.1)	119(42.7)	70(49.3)
	고1	90(53.9)	160(57.3)	72(50.7)
계		167(100.0)	279(100.0)	142(100.0)
$\chi^2 = 1.75$				
종교	무교	83(51.2)	89(32.4)	53(37.9)
	크리스찬	21(13.0)	70(25.5)	32(22.9)
	불교	58(35.8)	116(42.2)	55(39.3)
계		162(100.0)	275(100.0)	140(100.0)
$\chi^2 = 18.09^{**}$				
월 평균 용돈	1만원 미만	15(9.3)	35(12.7)	26(18.6)
	1~2만원 미만	49(30.2)	76(27.6)	42(30.0)
	2~3만원 미만	36(22.2)	69(25.1)	27(19.3)
	3만원 이상	62(38.3)	95(34.5)	45(32.1)
계		162(100.0)	275(100.0)	140(100.0)
$\chi^2 = 7.58$				
월평균 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73(47.1)	115(43.4)	71(52.6)
	150만원 이상	82(52.9)	150(56.6)	64(47.4)
계		155(100.0)	265(100.0)	135(100.0)
$\chi^2 = 3.06$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기술직	34(21.4)	70(25.7)	23(17.0)
	사무직	33(20.8)	50(18.4)	30(22.2)
	자영업	40(25.2)	54(19.9)	27(20.0)
	판매·생산직	52(32.7)	98(36.0)	55(40.7)
계		159(100.0)	272(100.0)	135(100.0)
$\chi^2 = 6.67$				
어머니 취업여부	비취업	108(66.3)	188(69.4)	101(72.7)
	취업	55(33.7)	83(30.6)	38(27.3)
계		163(100.0)	271(100.0)	139(100.0)
$\chi^2 = 1.45$				
아버지 학력	중졸	28(16.9)	53(19.3)	25(17.7)
	고졸	105(63.3)	161(58.8)	88(62.4)
	대졸이상	33(19.9)	60(21.9)	28(19.9)
계		166(100.0)	274(100.0)	141(100.0)
$\chi^2 = 1.07$				
어머니 학력	중졸	58(34.9)	91(33.3)	41(29.3)
	고졸	97(58.4)	152(55.7)	84(60.0)
	대졸이상	11(6.6)	30(11.0)	15(10.7)
계		166(100.0)	273(100.0)	140(100.0)
$\chi^2 = 3.36$				

\* p<.05 \*\* p<.01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소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과 시간소일활동강조선호유형이 여학생이 각각 35.7%와 45.5%를 보임으로써 남학생보다 약간 적었고, 적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은 여학생이 51.1%를 차지함으로써 남학생보다 약간 더 많았다. 종교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시간소일활동강조선호유형은 무교가 51.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교로 35.8%를 차지하였고, 크리스찬은 13.0%로 가장 적었다. 적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은 불교가

42.2%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무교로 32.4%를 차지하였다. 소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은 불교가 39.3%, 무교가 37.9%를 차지하였다. 울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리스찬이 적고, 그 결과 적게 표집되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여가활동선호유형과 여가체험선호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활동지향적 체험선호, 사회지향적 체험선호 및 소비문화지향적 체험선호는 모두 여가활동선호유형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e' 검증결과에 의하면 활동지향적 체험선호의 경우 적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은 시간소일활동선호유형 및 소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과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시간소일활동강조선호유형과 소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간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적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소비자들이 시간소일활동선호유형과 소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소비자들보다 더 활동지향적 체험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모든 종류의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청소년소비자들이 시간소일 여가활동이나 모든 여가활동을 소극적으로 선호하는 청소년소비자들보다 활동지향적 체험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Scheffe' 검증결과에 의하면 사회지향적 체험과 소비문화지향적 체험의 경우는 이 논문에서 유형화한 3개의 여가활동선호유형간에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향적 체험선호와 소비문화지향적 체험선호는 모두 적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이 가장 높았고, 소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이 가장 낮았다.

<표 8> 여가활동선호유형에 따른 여가체험선호에 관한 일원분산분석

집단 차원	시간소일 활동강조 선호유형	적극적 여가활동 선호유형	소극적 여가활동 선호유형	F비
활동지향적체험선호 scheffe'	28.13 b	30.01 a	27.45 b	32.58***
사회지향적체험선호 scheffe'	19.30 b	20.45 a	18.35 c	31.69***
소비문화적체험선호 scheffe'	21.63 b	22.53 a	20.26 c	25.81***

\*\*\*  $p < .001$

## VI. 결론 및 논의

여가는 단순히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라는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소비자는 과중한 학업부담 때문에 여가를 즐긴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청소년들이 안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과 여가활동을 통한 체험

에 초점을 맞춘 여가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소비자들의 절반 정도는 여가활동선호의 3차원을 모두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적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자기개발활동선호차원과 건강 및 오락활동선호차원에 비하여 시간소일활동을 보다 더 선호하는 시간소일활동강조선호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이 28.3%, 여가활동선호의 3차원을 모두 덜 선호하는 소극적 여가활동선호차원에 속하는 학생들은 24.2%로 가장 적었다.

시간소일활동강조선호유형은 여가의 질은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시간소일활동강조선호유형과 소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평소에 자기 자신의 관심, 흥미, 취미를 살려서 자신의 여가시간을 적극적으로 선용함으로써 자기개발과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가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여가시간을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물질적 자원과 시간, 장소와 공간,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울산광역시, 청소년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학교와 교육청,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여가정책과 여가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단체들이 상호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가활동선호유형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중에서 성별 및 종교하고만 의미있는 관계를 보였다. 조사대상과 조사지역이 다르고, 선행연구의 경우는 군집분석을 통하여 여가활동선호를 유형화하지 않고, 여가활동의 차원을 가지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인구사회적 변수가 여가활동선호유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대중문화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으며, 특히 대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알려진 청소년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여가활동선호유형은 인구사회적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여가선호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수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지향적 여가체험, 소비문화지향적 여가체험 및 활동지향적 여가체험은 모두 적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에 속하는 청소년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활동지향적 여가체험 선호는 시간소일활동선호유형과 소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지향적 여가체험과 활동지향적 여가체험은 소극적 여가활동선호유형에 속하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가장 덜 선호하고 있었다. 청소년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여가체험은 선호하는 여가활동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청소년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할 때에는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여가활동을 선호하는 유형에 속하는지를 조사하고, 유형에 따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소비자행동이론에 의하면 과거의 경험이 여가활동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는 여가체험이 미래의 여가활동선호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여가체험과 여가활동선호유형간의 관계를 보다 정교화시키는 이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여가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소비자가 체험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체험하는 내용에 따라 그 여가에 대한 선호가 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도 필요하다(Henderson, 1991; Howe, 1985).

## 참고문헌

-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외숙 · 이기춘(1992).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61-74.
- 김외숙(1997). 도시기혼여성의 여가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80-87.
- 김철호(1985). 소비자의 레저 활동 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영신·고동우·정준호 (1996). 여가경험의 심리적 본질.- '재미'란 무엇인가? 소비자학연구 7(2). 35-58.
- 안동선(1982). 주부의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 · 장윤희(1991). 도시주부의 여가활동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45-161.
- 이현주(1985). 주부의 여가활동유형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경미 · 황덕순(1990).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 홍성희(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 Allen, L.R. and Beattie, R.J.(1984). The role of leisure as an indicator of overall satisfaction with community lif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 99-109.
- Caldwell, L.L., Smith, E.A. & Weissinger, E.(1992), Development of leisure experience battery for adolescents: parsimony, st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4, 361-376.
- Chase, D.R. and Cheek, N.H. Jr.(1979). Activity preferences and participation: Conclusion from factor analytic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 92-101.
- Csikszentmihalyi, M.(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 Row.
- Csikszentmihalyi, M. & Larson, R(1985). *The Experience Sampling Method: Towards a systematic Sampling Method: Towards a systematic phenomen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Floyd, M.F., Shinew, K.J., McGuire, F.A. & Noe, F.P.(1994). Race, class and leisure activity preferences: marginality and ethnicity revised.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2), 158-173.
- Henderson, K. A (1991), *Dimensions of choice -A qualitative approach to recreation, park and leasure research-*, State College, PA-Venture Publishing, Inc.
- Howe, C. Z (1985). Possibilities for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in the sociological study of lea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7, 212-224.
- Iso-Ahola, S. E (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 Recreation*, Iowa , WM. C. Brown Company.
- Itoh, S., Otake, M., Amano, H., Morri, M., Senuma, Y., Ishiro, S. & Sujuki, T.(1988). Time spent on socio-cultural activities by Japanese urban male employees and their

- wives: A time use survey conducted in Tama New Town, Tokyo. *Journal of Home Economics Japan*. 39(6), 553-561.
- Lee, Y. K., Dattilo, J., & Howard, D (1994). The Complex and Dynamic Nature of Leisure Experi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 3, 195-211.
- Lounsbury, J.W. and L.L. Hoopes (1988). Five-year stability of leisure activity and motivation factor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118-134.
- McAvoy, L.H.(1979). The leisure preferences, problems and needs of the elderl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1(1), 40-47.
- Trafton, R.S. and Tinsley, H.E.A.(1980). An investigation of construct validity of measures of job, leisure, dyadic and general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 34-44.
- Unger, L.S. and Kernan, J.B.(1983). On the meaning of leisure: An investigation of some determinants of the subjective experi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4), 381-392.
- Williams, D.R.,Schreyer, R., & Knopt, R.C (1990). The Effects of Experiences Use History on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1), 36-54.